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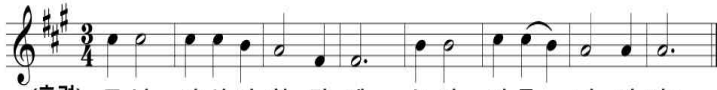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신명기 4,1-2.6-8

화답송



(후렴)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야고보서 1,17-18.21ㄴ-22.27

복음환호송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7,1-8.14-15.21-23

성가 | 입당성가 [15]

예물준비 [501]

영성체 [180]

파견 [286]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송준호 바오로	익명
송준호 바오로	이재경
송준호 바오로	강명옥 프란체스카
이명옥	이태주레오, 장민우 레아
생미사	봉헌
김택영 알버트 회복	익명
이주윤 카타리나 영육건강	익명
유경자 데레사	익명
이서원 마리로사	강혜숙
김상범, 한수현 감사	김영희 클라라
김기례 레지나 영육건강	이수산나
이로잔 캐더린 영육건강	이미숙 안나
이정현 헬레나 건강회복	박신희 리나
백중윤 에드몬드 출생감사	김종선 비비안나
고은경 모니카 영명축일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진달래 아가다 회복	대모
김나나 막달레나, 김제나 글로리아	성모회
이원호 마태오 회복	이루다 루시아
청년선택 참가자: 김유리 신혜리 심나은 김병훈	남지혜
청년선택 참가자: 김택형 이경철 심윤영 이재연	남지혜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9월 1일	백이백	민완준	민덕미	민덕미	유정옥	이유스티나 김실비아
9월 8일	김유화	송명근	민재인	민재인	김영숙	한데레사 조바실리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117,541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시다” 히브13.2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오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과
부모, 형제, 친척, 은인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신청 양식서>
와 함께 체크로 보내시거나 주일 미사후로 친교실에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미사 : 9/15(주일) 9:15, 본성당

▶성경공부: 시편과 지혜문학/

토요일	10am~	9월부터 2,4째주	Fr.김가롤로
-----	-------	------------	---------

▶김효주 수녀님을 위한 영적예물

오는 9월 20일 영명축일을 맞으시는 수녀님께 미사중에 영
적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 영적예물: 묵주기도: 개인당 ()단, 미사: 개인당 ()번
- * 미사후 친교실에서 작성하여 수거함에 넣습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후자
646-696-4680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하시길 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교리 첫만남: 2024년 10/13(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 주일 오전 11시/교육관 3A

신청: Sr.김효주 347.834.5784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개강

: 사도행전~요한묵시록

매주 목요일반	9/5(목)부터 10am-11:20am	교재구입: 친교실 성물부	Sr.김효주 신청: 347- 834-5784
매주 주일반	9/8(주일)부터 12:40pm~		

▶미동북부 레지오 마리아 봉쇄교육

일시: 2024 9/27(금)5pm~29(일) (2박3일), 300불

장소:뉴튼수도원 신청:윤루시아 꾸리아단장 347-633-3767

▶여름철 미사 참례 복장 안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공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하느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소매없는 옷, 슬리퍼에 맨발, 심한노출은 삼가바랍니다.

▶여행 중 미국내 성당 찾기

휴가중에 주일미사에 꼭 참석합니다!

call: 1-800-MassTIMES/1-627-7846

<https://masstimes.org/>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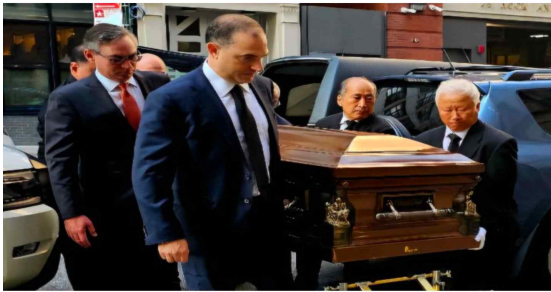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故 송준호 바오로 형제 장례미사



송준호 바오로 형제의 장례미사가 8월 19일 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향년 77세.

장례미사에는 유가족, 교우, 지인등 120여 명이 참례하여, 고인이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기도하였다. 바오로 형제의 세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 미사 독서와 첼로 연주를 봉헌하며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길 가시는 아버지를 배웅하였고, 고별사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존중을 기억하며 추모하였다. 고인의 유해는 늘 그리워 했던 아내와 함께 텍사스에 안장되었으며, 온화하고 따뜻한 고인의 성품은 맨하탄 교우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다.

“바오로 형제님! 뜻밖의 소식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하시분, 울프레야, 사회복지분과장, 그리고 요셉회에서 저희들과 함께 봉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씀없이 떠나서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으나, 우리 하느님께서 바오로 형제님을 병원 생활 한번 안하고 자택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늘로 데려가셨으니, 이런 큰복이 있으리오 하며 위안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느님 곁으로 가신 바오로 형제님! 지상에서 나그네살이하는 우리 믿음의 목적이 영생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우리의 친구자 되어주소서.”

요셉회 일동 올림(장례미사 고별사에서 발췌)